

# 학생을 잘 교육하는 조선대 치대

학과 개설 50주년... 치의학기본교육평가 6년 인증 결과 획득  
치과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2년 연속 100% 합격 '전국 유일'

##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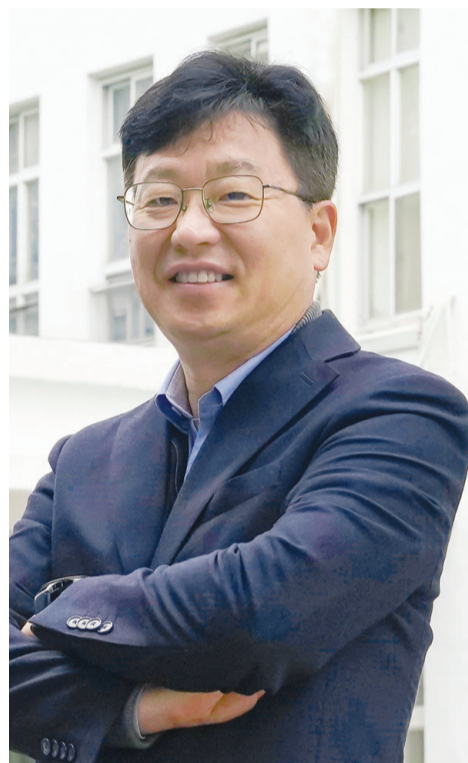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조선대 치대)은 호남을 대표하는 치과대학이다. 1974년 지역 사회에서 최초로 치과대학의 문을 연 이래 현재까지 치과의료 인력을 배출해온 인재 양성의 요람이다. 지난 50년간 배출된 3500여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은 광주·전남을 비롯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각지에서 구강보건 지킴이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조선대 치대는 설립 초부터 '학생을 잘 교육하는 대학 건설'을 목표로 매진한 결과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우뚝섰다. 1996년 한국교육협회 주관 전국 의·치학과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학으로 성장했다. 1990년대 치의학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초창기부터 치의학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조선대 치대가 일찍부터 치의학 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조선대 치대는 한 발 더 나아가 치의학 교육에 꾸준히 역량을 집중하고 선도적인 투자를 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 한국치의학교육평가기원이 주관한 치의학기본교육평가인증에서 6년 인증의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속적 질개선, 교육과정, 학생, 교육환경의 4개 영역에서 치의학교육의 혁신과 질 개선을 추진해온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평가인증 결과는 학생, 임상교수 등 학과 구성원들이 혼연 일체돼 이룬 결실이다. 첫째, 학생들이 개인별 역량 분석 자료에 따라 자기 주도적 역량관리를 체계화 화한 결과다. 둘째 학생 진로 지도에 다수의 임상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선대 치대 교수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생지도와 역량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대학을 지향한 결실이다. 이는 타 치과대학의 모범이 되는 조선대 치대가 갖는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조선대 치대 23대 집행부(학장 민정범, 부학장 유재식, 교육부장 유선경, 임상교육부장 이원표 교수, 조은미 교학팀장)는 학생 성공(student success)을 목표로 치의학교육개발 전담조직인



김춘성 조선대 총장

치의학교육연구센터(센터장 김홍중 교수)를 활성화했다. 인증전담부서인 성과관리팀(팀장 오지수, 서요섭 교수 등)의 신설,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 김희중 교수)의 활동 강화를 통해 치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힘써 이같은 성과를 일궈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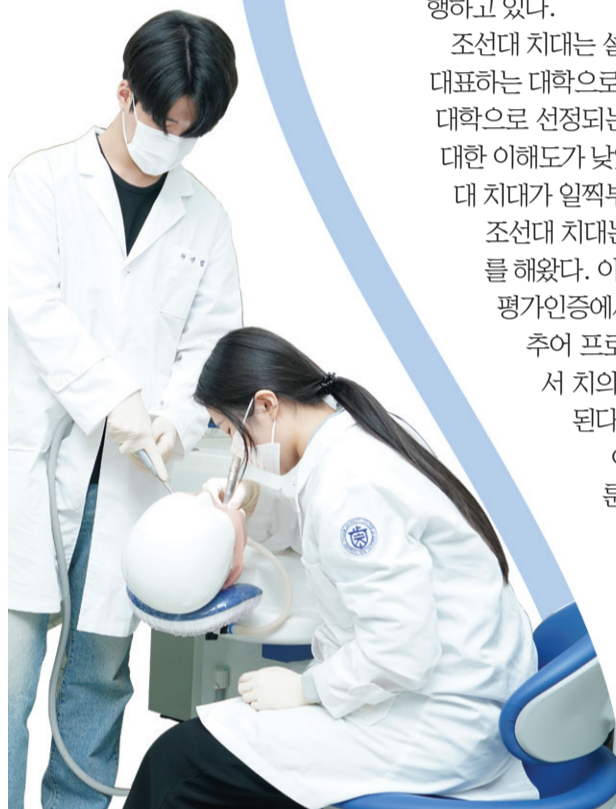
조선대 치대는 성과와 지표로써 교육력을 과시하고 있다. 치의학 교육을 위해 총력을 쏟은 결과 조선대 치대 졸업생들은 2022년과 2023년 치과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서 2년 연속 100% 합격했다.

치과의사 국가고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는데 현재 실기시험 합격률이 필기시험보다 현저하게 낮다. 2023년 전국 실기시험 합격률 95.69%였다. 조선대 치대의 2년 연속 실기시험 100% 합격은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지표다. 실기시험 100% 합격은 전국적으로도 조선대 치대가 유일하다. 또한 필기시험을 포함한 전체 국가고시합격률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반세기의 역사를 보유한 대학으로 자리매김한 조선대 치대는 '학생을 잘 교육하는 대학 건설'이라는 명성을 지켜왔다"면서 "100년 대학 건설과 100년 인재 양성의 목표를 위해 나머지 반세기를 대비하고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치과대학 치호인행사에 참석한 신입생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전경.

